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조는 자신의 생부였던 사도 세자의 묘인 현릉원을 화성으로 옮김과 동시에 자신의 통치 이념을 새롭게 드러내는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796년 조선 후기 과학 기술과 문화적 역량을 총집결시킨 대역사(大役事)로 평가되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국가 개혁과 관련한 권농정책의 일환으로 수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 기반 시설인 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축조한 화성의 3대 제언(堤堰)*, 즉 ‘축만제’, ‘만년제’, ‘만석거’이다. 당시 축조된 이 세 제언에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데 동원된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

규모가 제일 큰 축만제는 몽리(蒙利)* 면적이 만석거나 만년제의 3배 이상이나 되는 큰 제언으로, 그 아래에 군대 조직인 장용영의 둔전(屯田)*이 대규모로 조성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수리 시설들은 그 외에 다른 역할들도 하고 있었다. 만년제는 현릉원의 산소 근방에 위치해 묘소가 갖추어야 할 풍수적 요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 제방은 만석거와 더불어 왕이 원행할 때 행차하는 길로도 이용되었다. 또한 만석거는 축만제와 더불어 화성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화성 방어를 위한 해자(垓字)* 기능도 겸하였다.

하지만 이 제언들은 농업 관개(灌溉)* 수리 시설로서의 기능이 무엇보다 두드러졌다. 당시 기존의 수리 시설은 그 시설로 인한 혜택이 미치는 범위, 즉 몽리 면적이 지나 치게 제한적이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불완전해 당대 사회의 농업 생산은 근본적으로 자연조건의 변동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리 시설의 정비 및 건설은 정조가 개혁적인 농업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이었다.

조선 후기 화성 3대 제언이 축조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제언에 설치된 관개 시설로서의 수문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즉 수통 방식과 물빈지 방식이 있었다. ㉠수통 방식은 제언 안의 바닥 쪽에서 제언 밖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물 통로 입구를 여닫음으로써 관개와 배수를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제언 바닥을 관통하여 수문과 관개 수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논밭으로 유입되는 관개용수는 심 층수로서 수온이 낮아 작물들에 냉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관개 유로를 길게 하거나 우회시켜 수온을 상승시킨 다음 관개용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물 통로 입구를 여닫기 위해 깊은 수심 속으로 직접 잠수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뿐 아니라, 제언에서 압력이 가장 큰 수문으로 인체가 빨려 들어갈 위험도 있었다.

㉡물빈지 방식은 수문으로 여러 개의 판목을 끼우거나 제거함으로써 관개와 배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상층의 표층수를 먼저 흘려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물의 냉해 위험이 없어 농민 입장에서는 수통 방식보다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빈지를 지탱하는 기둥이나 판목이 수압을 견뎌 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고, 배수 시에도 독이 허물 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물빈지 수문을 제작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제언의 두께가 가장 얇은 곳이자 제언 내의 수압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수문이기 때문에 물빈지 수문은 구조상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화성의 세 제언에 설치된 수갑이라는 수문 시설은 위와 같은 수문 시설보다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성 3대 제언의 요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격판과 이를 지지하는 틀로 이루어진 서 있는 갑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물 난간 모양의 네모난 틀이 연 이어져 통로를 이루는 누워 있는 갑문이다. 이 중 서 있는 갑문 부분이 제언 안쪽과 접하고, 누워 있는 갑문의 대부분은 제언의 바닥과 유사한 깊이에 묻히며, 그 끝 부분이 제언 밖의 논밭 수로와 연결된다. 제언 안의 물은 서 있는 갑문의 격판 위를 넘어 누워 있는 갑문의 입구로 흘러 들어간 뒤 그 갑문을 통과하여 출구를 통해 제언 아래의 논밭으로 관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격판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서 있는 갑문의 높낮이 설정을 통해 관개 수량과 제언의 수위를 간단히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누워 있는 갑문 전체가 터널식의 입체 구조식으로 제언의 뚝 아래에 묻혀 있어 서 있는 갑문을 지탱함으로써 그것이 받는 수압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제언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듯 화성의 3대 제언들은 하나같이 수문 역할을 하는 수갑이 모두 설치되어 관개 기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제언의 견고성도 확보되었다. 그리고 그 우수성은 사용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 삼남 지역이 가뭄의 피해 속에 힘들어할 때 화성의 3대 제언 아래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할 정도였다.

* 제언: 오늘날의 댐에 해당하는 저수 시설.

* 몽리: 수리 시설로부터 물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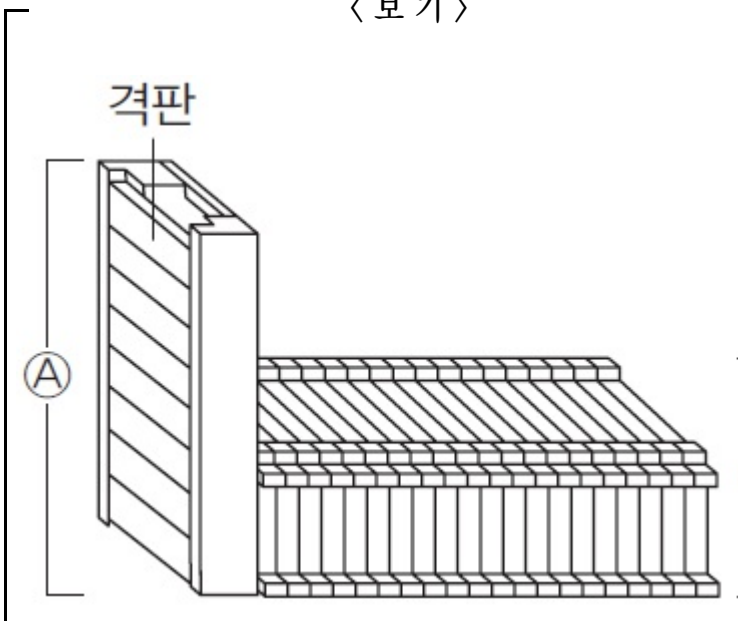
* 둔전: 궁과 관아에 딸린 밭.

* 해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으로 둘러 판 못.

* 관개: 농사짓는 데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댐.

〈보기〉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실린 ‘만석거’의 수갑 그림이다.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의 맨 윗부분으로 제언 안의 물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다.
- ② ㉠의 격판을 끼웠다 뺐다 함으로써 제언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 ③ ㉡는 제언의 바닥과 유사한 깊이에서 논 밭 수로와 연결된다.
- ④ ㉠과 ㉡가 맞닿은 부분의 개폐를 통해 관개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 ⑤ ㉡는 ㉠을 지탱하여 ㉠이 받는 수압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주는 요동 경계에 있는데, [국사] [고구려 본기]에

는 이렇게 되어 있다.

시조 동명성제는 성이 고 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 가 살았는데, 부루가 죽자 금와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금와는 그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마났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통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드디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금와는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또 따라와 비추었다. 이 때문에 임신을 하여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왕이 이것을 개, 돼지에게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그 알을 피해 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나 짐승이 알을 덮어 주었다. 왕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화에게 돌려주었다. 유화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 따뜻한 곳에 두자 어린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㉔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나이 겨우 일곱에 용모와 ㉕재락이 비범했으며, 스스로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 백 번 쏘아 백번 맞추었다. 나라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

금와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말하였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아마도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㉖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서 살지게 하였다. 왕은 자신은 살진 말을 타고 마른 것은 주몽에게 주었다. ㉗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주몽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곧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락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엄수에 이르러 물에게 알려 말하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이다.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㉘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건너게 한 다음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하였

다. 졸본주에 이르러 마침내 도움을 정했으며, 미처 궁궐을 짓지는 못하고 단지 비류수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다. 이 때문에 고씨를 성씨로 삼았다. 주몽의 나이 12세 였는데,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년에 즉위하여 왕이라고 일컬었다. 고구려는 전성기에 21만 508호였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을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화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④ 천상계와 현실계의 대비를 통해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있다.
- ⑤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null

15세기와 현대의 단어 형태를 비교할 때, 그 사이에 적용된 음운 변화를 <보기>에서 모두 찾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5세기에 존재하던 음운 중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 사라진 대표적인 것으로 ‘ㄹ’과 ‘ㅅ’이 있다. 이 두 음운의 소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모음 ‘ㅏ’는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ㅑ’로 변했다.

(나) 모음 ‘ㅓ’는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ㅡ’로 변했다.

(다) 자음 ‘ㅈ’은 음가가 없는 ‘ㅇ’으로 변하여 사라졌다.

	15세기	현대	적용된 음운 변화
①	활	달	(가)
②	電	매듭	(나)
③	두	두어	(다)
④		사이	(가), (다)
⑤		마음	(가), (나), (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님플 그리 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슷[㉡]요[㉢]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시리[㉦]다

넉시라도 님은 [㉧]시[㉨] 녀저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다

힛마리신더

웃븐더 아으

니미 나[㉬]마 ㉭니[㉮]시니[㉯]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나)

「정과정」은 고려 시대 내시낭중 정서가 지은 노래로, 『고려사』 악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정서는 인종의 인척으로 그의 총애를 받았다. 의종이 즉위하자 왕이 정서를 동래로 보내면서 이르기를, “오 늘 가게 된 것은 조정의 의론에 몰려서이다. 머지않아 부를 것이다.” 하였다. 정서가 동래에서 오래 머물러 있 었으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거문고를 잡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극히 슬펐다.

『고려사』의 기록을 믿는다면, 의종이 정서를 내친 것은 왕 자신의 뜻과 달리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정서의 부인은 인종 비인 공예 태후의 동생으로, 정서는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인종 과 가깝게 지내면서 궁궐을 자주 드나들었다. 인종에게는 훗날 의종이 된 태자와 대령후 경이 있었는데 정 서는 공공연히 대령후 편에서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인종이 죽고 의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대령후 편 에 서 있던 정서를 유배 보낸 것이다. 이에 정서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생각을 노래에 담았다.

정서가 원래 지었던 노래는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양식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정서가 죽은 뒤 대략 180여 년이 지나 이제현은 현재 전하는 노래의 앞 녁 줄에 해당하는 내용을 7언 절구의 한시 형태로 남 겼고, 이로부터 다시 100여 년 뒤 현전하는 형태의 국문 시가로 『악학궤범』(1493)에 실리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 이르면 이 노래는 궁중에서 처용무를 출 때 불리면서 전승되었으며, 민간의 사대부들은 정서 의 처지를 이해하며 이 노래를 소재로 많은

악부시 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 노래가 충신연주
지사의 의미 를 담고 있었다는 점과 정계에서 내몰
린 슬픈 심정을 후세의 사대부들이 공감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가)의 ㉠~㉥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② ㉢: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존재로 삼은 대상
이다.
- ③ ㉡: 화자의 결백을 표현한 것이다.
- ④ ㉣: 화자가 입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 입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보여 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쌀한 속살을 깔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대면 순간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 되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푹푹

배암의 포아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 지 잘은 아직 몰라도.

- 신동집, [오렌지]

(나)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 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완결되지 않은 시행의 마무리를 통해 시적 여운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특성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다음은 졸업식에서 답사로 낭독하기 위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3년 전,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엄하신 담임 선생님을 만난 그 학생은 등교 첫날 5분 지각 때문에 뒤통 꾸중을 듣고 집에 와서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러려고 이 학교를 온 게 아닌데. 5분 늦었다고 첫날부터 이게 뭐야!”

㉠부모님께 짜증을 부리며 학교 다니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던, 그 철없던 학생이 어느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졸업생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학우들, 그리고 부모님!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졸업’이라는 말을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겠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역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멀게만 느껴지던 그날은 어느새 바로 이 순간, ‘지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등학교의 교복을 입고 우리 모두가 이 강당에 모이는 마지막 순간 말이지요.

막상 졸업을 하려니까,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웃음이 나다가도, 또 문득문득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록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까? 비록 저마다 서로 다른 장면이 상영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낸 ○○고등학교에서의 3년을 기록한 영화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1년 전 오늘, 방금 2학년 후배가 한 것처럼 선배들을 향해 송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졸업생도 아니었던 제가 그만 부끄럽게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 울음 때문에 감동적인 졸업식이 되었다는 칭찬을 해주신 어른들도 많았지만, 대체 왜 울었느냐고 의아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송사를 낭독하던 그 순간, 제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저를 아껴 주고 챙겨주던 선배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특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 내고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배출한 우리 학교가 제게는 그 어떤 고등학교보다 더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 제가 가진 이러한 애교심은 오늘 졸업하는 모든 친구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자리를

잡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졸업한 후에도 모교를 단 한시도 잊지 않고, 세상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 모교를 빛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㉔이제 저희는 떠납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교실, 땀 흘리며 뛰던 운동장, 그리고 거기서 울고 웃던 그 모든 기억들을 남기고, 그동안 저희를 위해 애써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훗날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인이라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보낸 3년은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년 2월 ××일

졸업생 대표 △△△

〈보기〉에 따라 윗글을 평가한 학생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식사문(式辭文)은 ㉔경조 간(慶弔間) 각종 의식 장소에서 낭독하는 문장이다.

경사스러운 일이거나 불행한 일이거나 붓을 들어야 하리만큼 친근한 사람이라면 구태여 식사(式辭)로 아니라도 이미 당사자와 함께 즐거웠고 함께 슬펐을 것이다. 구태여 문장을 꾸미는 의의는 의식을 위해서요, 또 ㉞회참자 일동에서 읽어 들려 기분을 고조시킴에 있다 하겠다.

의식을 위해서니까 먼저, ㉝정중해야 할 것이요, 회참자(會參者) 일동에게 읽어 들리기 위해서니까, 낭독조로 써야 할 것이요,

공중(公衆)의 앞에 공개하는 글이라, ㉜사적인 내용에 치우치지 말 것이요,

식사(式辭)를 혼자 차지한 것이 아니니, 지루하게 길지 말아야 할 것이요,

위낙이 형식인 것을 ㉞내용까지 형식적이어서 회중(會衆)의 기분을 충동시키지 못할 것이니, 정분에 절실히 청중에게 심각한 인상을 주는 내용이라야 할 것이다.

- 이태준, 『문장강화』 제4강 ‘각종 문장의 요령’ 중

① 졸업식에서 답사로 낭독하기에 알맞게 작성된 글이므로 <보기>의 ㉜에서 제시한 식사문의 정의에 부합하고 있군.

② 졸업하는 학우들의 감회를 대변하고 서로 헤어지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은 <보기>의 ㉞에서 설명한 식사문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군.

③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 경어체의 문장으로 작성했으니 식사문의 어투와 관련하여 <보기>의 ㉝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고 있군.

④ 부모님과 선 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자기의 심정을 진술한 것은 식사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기>의 ㉜가 제시한 조건을 고려하면 삭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군.

⑤ 모교를 단 한시도 잊지 않겠다는 것은 졸업식 때마다 늘 들었던 말이니까, 식사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기>의 ㉞에서 제시한 조건을 고려할 때 수정하면 좋을 상투적인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군.

null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한 이후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끝부분이 완결되 지 않은 것 같아. ‘원고 요청서’를 보면 세계에 소개할 만한 한국의 문화유산인 고인돌에 대해 글을 싣고자 한다고 했어. 우리나라 고인돌이 세계인들에게 소개할만한 문화유산인 이유를 글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고인돌 문화와 유사 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 ① 우리나라의 선사 유적들은 거대한 석조로 만들어진 2,000~ ,000년 전의 무덤과 장례의식 기념물로서 선사 시대 문화가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당시의 기술과 사회 현상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 주는 유적이다.
- ② 거석문화는 주로 인간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연석이나 가공한 돌로 구조물을 축조하여 숭배의 대상물이나 무덤으로 이용한 선사 시대의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인돌은 하 루빨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③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인돌을 살펴보았다. 세계사적 차원에서 고인돌은 ‘거석문화’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영국의 스톤헨지, 이스터 섬의 거인상 등이 거석문화로 손꼽히는 유적이다. 우리나라의 고인돌 또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석문화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세계인들에게 소개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 ④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유산은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그 가치를 음미할 만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산들이다. 우리나라에도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 및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세계 기록 유산이 있다. 이처럼 소중한 인류의 자산을 과학적 관점에서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 ‘과학으로 만나는 세계 유산’을 계속 연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이다.
- ⑤ 고인돌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도대체 저 거대한 덮개돌을 어떻게 받침돌 위에 올릴 수 있었을까’이다. 이런 궁금증은 박물관에서 단번에 해결되었다. 통나무를 굴려서 이동한 받침돌을 땅의 흠에 세운 후 흠으로 주위를 덮어 언덕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덮개돌을 올리고 나서 덮었던 흠을 다시 파내면 고인돌만 남게

되는 것이다. 청동기 시대에 저런 지혜를 발휘했다니,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다.

null

〈보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보 기 〉

[표준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ㄴ(ㄴ, ㄷ, ㅈ, ㅊ, ㅌ), ㅂ(ㅍ, ㅌ, ㅍ,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국밥[국뽕]

[표준발음법 제26항]

한자어에서, ‘ㄴ’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ㄴ,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갈등[갈똥]

	[표준발음법 제23항]	[표준발음법 제26항]
①	국물	결단
②	막대	발전
③	밥그릇	걸출
④	솜이불	일식
⑤	웃고름	열기구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는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 뒤뜰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서 무지개 음악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어 많은 학생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음악회가 점심시간에 실시되다 보니 점심시간에 자습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는 항의를 많이 합니다. 한편, 급식 순서가 뒤쪽인 반은 공연 관

람 시간을 못 맞추어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음악회를 수요일 점심시간에서 방과 후 시간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무지개 음악회는 점심시간이 아니라 방과 후 시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저도 가끔 점심을 일찍 먹고 자습실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음악회가 있는 날은 그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까지도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음악회 시간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학생들에게도 조용히 공부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음악회를 방과 후에 실시한다면 점심시간에 자습하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고, 급식 순서에 상관없이 보다 많은 학생이 음악회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관람하는 학생 모두 점심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2: 찬성 측에서는 점심시간에 자습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방과 후 시간에 하자고 하셨는데 음악회에 참여하는 학생수에 비하면 점심시간에 자습실을 이용하는 학생수는 소수입니다. 소수의 학생 때문에 다수의 학생이 점심시간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점심시간은 그 속성상 다수 학생의 휴식권이 소수 학생의 학습권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A]

찬성 1: 대다수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수의 학생이

피해를 봐도 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습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무지개 음악회는 기존대로 수요일 점심시간에 해야 합니다. 방과 후로 옮길 경우 학원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이유로 음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처음에 음악회를 점심시간에 실시한 이유가 보다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방과 후가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음악회를 실시하는 것이 학교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더 효과적입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다수의 학생은 음악회가 기존대로 점심시간에 실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2: 수요일 점심시간에 해야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음악회에 꼭 참여 하고 싶은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개인 일정을 조정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급식소 수용 가능 인원이 적어서 배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식 순서가 뒤쪽인 경우, 이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 나면 공연이 끝나 버려서 음악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길 바란다면 방과 후로 옮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B]

반대 1: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일 음악회가 있는

날은 배식 방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모든 학급의 급식이 일찍 끝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 1: 지난주에 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방과 후로 옮겨도 참여하겠다는 학생 비율이 70% 이상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음악회를 실시하면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위 토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핵심 쟁점과 주장에 따라 양측이 제시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 쟁점	양측의 입장	
	찬성 측	반대 측
무지개음악회를 실시하기에 적절	〈주장〉 방과 후	〈주장〉 점심시간
	〈근거〉 • 배식 순서 때문에 점심시간에 음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음. …… ㉠	〈근거〉 • 방과 후에는 학… 음악회에 참여할 수 많음. ……………
	• 설문 조사 결과 방과 후에 해도 음악회에 참여하겠다는 학생 비율이 70%를 넘음. …………… ㉡	• 도서관에서 공부할 학습권을 보장하… …………… ㉢ • 점심시간을 이… 해소하고 싶어 하…

한 시 간 은?	있음. ... ㉔
-------------------	-----------

① ㉔

② ㉔

③ ㉔

④ ㉔

⑤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서울 종로 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형 진태와 대학 진학을 앞둔 동생 진석에게 6·25 전쟁이 닥친다. 피난지인 대구에서 진석이 군대에 징집되자 진태는 진석을 지키기 위해 함께 입대한다.

S#38. 낙동강 방어선 - 대대 본부

세찬 바람에 막사가 심하게 흔들린다.

㉔차렷 자세로 서 있는 진태

대대장, 허리춤에 손 얹고 꼴꼴이 마주 서 있다.

진태: 조금 전 동생과 탈영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동생이 심장병 환자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후방 병원으로 보내 주십시오.

대대장:

진태: 저더러 탱크를 부수라면 부수고 인민군 목을 베어오라면 베어오겠습니다. 적 진지에 폭탄 메고 들어가 자폭이라도 하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대대장,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들고 펼치며

대대장: 1중대 1소대 이용찬 간질, 1소대 최준호 폐결핵, 1소대 나영길 퇴행성관절염, 1소대 여진철 만성신부전, 1소대 허인호 폐결핵, 2소대도 필요해?

진태: …….

대대장: 이 친구들 다 후방 보내? 여긴 누가 싸워. 멀쩡한 놈 하루아침에 병신 되고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놈 멀쩡해지는 데가 전쟁터야. 탈영할 용기로 싸워. 탱크 부수고 인민군 죽이고 진지를 부순다면 동생 후송이 아니라 제댄들 못 시키겠어?

진태: 동생만 보낼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대대장: 바로 그런 배짱과 정신으로 싸우란 말이야! 나라에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라구!

진태: …….

대대장: (왔다갔다하며) 얼마 전에 우리 옆 11연대에 자네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거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부대에 있었는데 지난달에 아들 제대했어.

진태: ㉠(눈이 반짝 빛난다.)

대대장: 어떻게 제대했는지 궁금해?

진태:!

S#39. 낙동강 방어선 - 소대 참호*

태풍이라도 불듯 드센 바람

낮에 준 유서봉투 보며 속지 꺼내는 진석

뭔가 쓸 듯 만년필 뚜껑을 연다.

다가와 봉투 낚아채는 진태, 북북 찢는다.

진석:

진태: 어머니가 유서 쓰라고 만년필 사준 거
아냐.

㉡털썩 진석 옆에 걸터앉는다.

진태: 유서 는 죽을 놈들이나 쓰는 거야. 약
해지면 안 돼.

진석: (만년필 뚜껑 닫고는) 이게 다 꿈이
였음 좋겠어. 이따 눈 뜨면 우리 집 안방이구.
난 아침 먹으면서 형한테 얘기할 거야. 정말
진짜 같은 이상한 꿈을 꿔다고..... 난 가방 챙
겨서 학교 가고 형이랑 어머니는 가게 가고.

진태:

진석: 아까 투항병 죽으면서 어머니, 어머니 그랬어. (글썽 눈물 맺힌다.) 난, 난 그렇게 안 죽을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을 거야. 더 이상 바보 같이 기어 다니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거야.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한테…….

진태: (등 토닥이며) 걱정 마,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S#44. 낙동강 방어선 - 소대 교통호*

허 중사: ㉠(교통호 위를 오가며) 팔 수 있는 데까지 파라. 한 삽 더 파면, 그만큼 오래 산다. 주위에 아직 돌들이 남아 있다. 마빡 깨지기 싫으면 치워라.

교통호, 참호 파고 있는 소대원들. 수군수군 어수선한 분위기

장 일병: 2대대에 3대대까지 넘어갔으면 끝장 이야.

영만: 고양이 쥐 몰듯이 밀고 오겠구만.

양 주사: 이번엔 시신 수습할 사람도 안 남겠네.

임 일병: 다 오라 그래, 인민군 놈들! 다 없애 버릴 테니까!

㊤작업 중인 참호 위에 올라서는 소대장

소대장: 소대 주목! (둘러보며) 허 중사, 고영만, 양길섭, 장민호, 이승철, 완전무장하고 앞으로 나와.

승철: 무슨 일인데예?

소대장: 방어선 진입로에 지뢰 매설을 늘리라는 대대 지시다.

영만: (불멘소리) 진입로라면 적진 코앞인데요?

소대장: 그래서?

영만: 아니 뭐……. (돌아서며 궁시령) 꼭 이런 데 뽐힌다니까.

듣고 있는 진태, 불쑥.

진태: 저도 가겠습니다.

바로 옆 진석, 형의 돌출 행동에 당혹해 한다.

진석: ……?

소대장 좋다. 이진태까지 포함해서 간다. 나머지 대원들은 일절 동요없이 진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진석: (얼떨떨) 형…….

진태는 이미 탄띠 차고 수류탄 챙겨 메고는 교통호 위로 오른다.

손쓸 수도 없는 상황, 얼떨떨하게 보는 진석.

- 강제규 · 한지훈 · 김상돈 각본, 「태극기 휘날리며」 -

* 참호: 야전에서 몸을 숨기면서 적과 싸우기 위하여 방어선을 따라 판 구덩이.

*교통호: 참호와 참호 사이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판 구덩이.

㉠~㉤ 중 <보기>의 촬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클로즈업(close-up): 피사체의 주요 부분을 특히 크게 찍거나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기법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대 문 맞은편 길가에 앉아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노인이 있었다. 방망이를 한 벌 사 가지고 가려고 깎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값을 굉장히 비싸

게 부르는 것 같았다. 좀 싸게 해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방망이 하나 가지고 에누리하겠소? 비싸거든 다른 데 가 사우.”

대단히 무뚝뚝한 노인이었다. 더 깎지도 못하고 잘 깎아나 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곱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고 있다.

인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이다.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 사실 차 시간이 빠듯해 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인제는 초조할 지경이다. 더 깎지 아니해도 좋으니 그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 되나.” 나도 기가 막혀서 “살 사람이 좋았는데 무얼 더 깎는다는 말이오.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먼. 차 시간이 없다 니까.” 노인은 통명스럽게 “다른 데 가서 사우, 난 안 팔겠소.” 하고 내뱉는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틀린 것 같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깎아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치면 되나.” 좀 누그러진 말씨다. 이번에는 깎던 것을 솥재 무릎에다 놓고 태연스럽게 곰방대에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는가. 나도 고만 지쳐 버려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에 노인은 또 깎기 시작한다. 저러다가는 방망이는 다 깎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또 얼마 후에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고 내 준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

부터 다 돼 있던 방망이다.

차를 놓치고 다음 차로 가야 하는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 따위로 장사를 해 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없다. 손님 본위가 아니고 제 본위다. 그래 가지고 값만 되게 부른다. 상도덕(商道德)도 모르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이다.’ 생각할수록 화증이 났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다보니 노인은 태연히 허리를 펴고 동대문 지붕 추녀를 바라보고 섰다. 그 때, 바라보고 섰는 옆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이고 부드러운 눈매와 흰 수염에 내 마음은 약간 누그러졌다. 노인에 대한 멸시와 증오도 감쇄(減殺)*된 셈이다.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 내는 이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의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면 배가 너무 부르면 다듬다가 옷감을 치기를 잘 하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잇살이 퍼지지 않고 손에 헤먹기가* 쉽단다.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체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중략)

옛날 사람들은 흥정은 흥정이요 생계는 생계지만,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만은 오직 아름다운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했다.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심혈을 기울여 공예 미술품을 만들어 냈다. 이 방망이도 그런 심정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 따위로 해서 무슨 장사를 해 먹는담.” 하던 말은 “그런 노인이 나 같은 청년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물건이 탄생할 수 있담.” 하는 말로 바뀌어졌다.

- 윤오영, 「방망이 깎던 노인」-

*감쇄(減殺) : 줄어 없어짐.

*헤먹기가 : 꼭 맞지 않고 헐겁기가

(나)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新葛濁酒
如湮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大碗麥飯高
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飯罷取枷登
場立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雙肩漆澤
翻日赤

응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呼邪作聲舉
趾齊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須叟麥
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雜歌互答聲
轉高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但見屋角
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觀其氣色樂
莫樂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了不以心爲形

役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樂園樂郊不遠有

무엇 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 리오. 何苦去作風塵客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다)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툰고.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를쏘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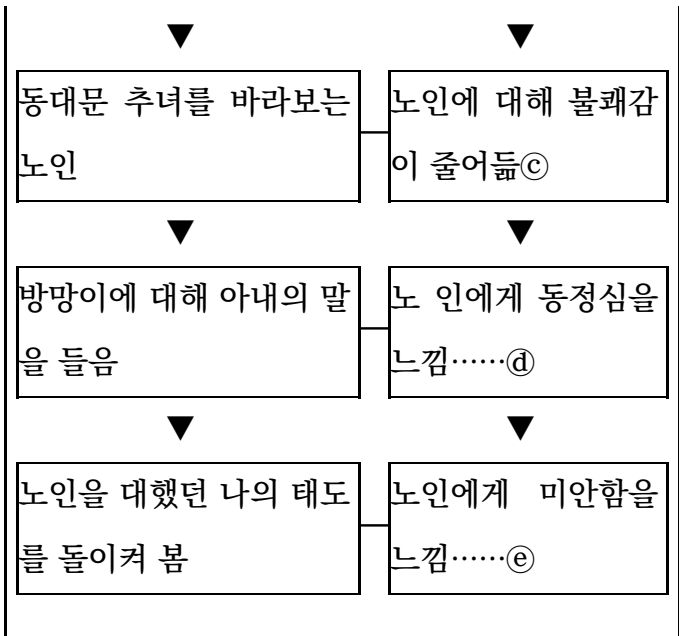
-원천석의 시조-

*세한고절(歲寒孤節) : 한 겨울 추위를 이겨 내는 높은 절개.

(가)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상황	‘나’의 심리
여유를 부리며 방망이를 짚는 노인	갑갑하고 초조해 짐…………㉠
▼	▼
‘나’의 재촉을 무시하는 노인	점점 기분이 나빠 짐…………㉡



- ① ㉔ ② ㉕ ③ ㉖ ④ ㉗ ⑤ ㉘

null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언을 사용하여 작품의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세한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서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⑤ 구두점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윷놀이의 규칙은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놀이를 행하는 방법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과 흥분을 유발한다. 즉 잡고 잡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격렬한 싸움이 전개되어 긴장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역

통합된 의사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것은 같은 마을이 나 문중에서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책임자를 선정하여 함께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 글의 내용을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윷놀이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조사해 본다.
- ② 윷놀이와 같은 민속놀이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 ③ 윷놀이에 삶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 본다.
- ④ 윷놀이에 담겨 있는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에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본다.
- ⑤ 윷놀이처럼 수학적 원리가 들어 있는 민속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null

(가)를 참고하여 (나)의 ㉠~㉣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가) 현대 국어의 모음</p> <p>현대 국어의 모음은 모두 21개이다. 21개의 모음을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p> <p>- 단모음(10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p> <p>- 이중 모음(11개): ㅘ, ㅙ, ㅚ, ㅜ어, ㅟ, ㅠ, ㅡ, ㅢ, ㅤ, ㅥ, ㅦ</p> <p>(나) 모음의 현실 발음 사례</p> <p>㉠: 단모음 ‘ㅛ’를 이중 모음 ‘ㅚ’로 발음한다.</p>

㉠: 단모음 ‘ㄱ’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ㄱ’과 ‘ㄲ’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발음한다.

① ㉠에도 불구하고 (가)의 이중 모음의 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군.

② ㉠으로 인해 (가)에 없던 이중 모음이 새로 생기겠군.

③ ㉡으로 인해 (가)의 이중 모음 ‘ㅅ’과 ‘ㅆ’도 구분이 안 되겠군.

④ ㉠, ㉡은 공통적으로 (가)의 이중 모음의 수를 늘리겠군.

⑤ ㉠, ㉠, ㉡은 모두 (가)의 단모음의 수를 줄어든게 하겠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에 [A]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덜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쥘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썩어 썩어 가는 것이었다.

[B]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C]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
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
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
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쉼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
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
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딜옹배기: 질옹배기.

*북덕불: 짚이나 풀 따위가 어지럽게 얼크러진 뭉
텅이에 피운 불.

*나줏손: 저녁 무렵.

*갈매나무: 갈매나무목 갈매나무과의 쌍떡잎식물.
높이 5m 정도의 낙엽 활엽 관목.

(나) 날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회관 옆

청솔한 그루 꼳꼳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댕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 다.

저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 천등산 박달재를 올고 넘는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 와

까막까지 열어 죽는 이 아침에도

㉣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오른다.

- 고재종, 「세한도」

- ① ㉠: 상황을 과장하여 생동감 있었던 과거의 농촌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장의 행동을 통해 쇠락한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색채어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힘겨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산업 발전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태 질서의 혼란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내몰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생태시는 산업화와 물질주의가 초래한 이러한 병폐를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노래한다.

초기의 생태시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태의 위기를 고발하는 작품이 많았다. 무분별한 산업화가 불러온 폐해, 특히 인간과 자연이 모두 파괴와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을 비판적 관점에서 그려 내는 경향을 띤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서정적인 생태시는 생태계의 조화로운 생명 존귀함을 그려 내고, 이를 통해 시인이 느끼는 긍정적 깨달음을 노래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자연은 더 이상 개발과 정복의 대상이거나 피해를 준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은 스스로 충만한 생명력을 갖춘 순환 적인 존재이자, 세상 만물에 한없이 삶의 터전이 되어 주는 근원적인 생명의 존재로서 인간이 돌아가야 할 대상 혹은 닮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시선 혹은 인식의 전환이 자리를 잡고 있다. 초기
의 생태시는 인간을 무지와 탐욕의 존재로 간주한
다. 순환하는 생태의 질서에 무지한 인간이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를 무분별
하게 파괴하였고, 그로 인해 인간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생각했다. 초기의 생태시가 서
정의 목소리가 약화되고 ㉠문명 비판과 풍자의 시
로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정적인 생태시는
인간을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며 생
태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
달음을 얻는 존재로 그려 내는 경우가 많다. 자연
과 직접 교감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자연 만물의 일부인 인간 스스로 자연과의
상생(相生)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나) 우리 시대의 비는 계절과 무관하다.

시도 때도 없이

푸른 것은 모조리 갇아먹어 버리는

전천후 산성비 .

그렇다 전천후로

비는 죽은 구근*을 흔들며 깨워서

자꾸만 생산을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이 넘치고 넘치는

그래서 미처 다 소비도 하기 전에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린다고는

누군가 참 잘도 말했다.

한때 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독했던

그러한 절망이

이제는 도처에서 천방지축으로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는 시대.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우면서

그 위에 내리는

시도 때도 없는 산성비.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

일회용 비닐우산이 되어 버린

절망을 쓰고 있다.

비극이 되기에는

너무나 흔해 빠진 우리 시대의 비

대량 생산의 장미 를 쓰레기통에 가득 채우는

전천후 산성비 오늘도 내린다.

- 이형기, [전천후 산성비]

*구근: 둥근 모양이나 덩어리 모양으로 된 줄기나 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썰기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의 혼례,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산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앞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험로 훑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어둔다. 내 마지막 손이야. 땀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어둔다.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나)의 전천후 산성비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과 무관하다.’라는 표현을 볼 때, 자연의 섭리인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경이감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② ‘죽은 구근을 흔들어 깨워서’라는 표현을 볼 때, 살아 있는 존재와 죽어 있는 존재 간의 순환을 만들어 내는 산성비의 역할을 부각하는 시어이다.
- ③ ‘누군가 참 잘도 말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화자가 선지자의 절망적인 예언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부각하는 시어이다.
- ④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우면서’라는 표현을 볼 때, 현실의 문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새로운 신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환기하는 시어이다.
- ⑤ ‘오늘도 내린다.’라는 표현을 볼 때,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오는 산성비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일깨우고 있는 시어이다.

다음은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생회장 후보 ○○○입니다. (박수를 보내는 청중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 등록 후 지난 3일 동안의 짧은 선거 운동 기간에 많은 학우들을 만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박수 소리를 듣게 되니 정말 가슴이 벅칩니다. 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으면 아마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저는 주연상보다는 음향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저의 장래희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향 감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시 진지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서 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굳이 제 꿈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회장의 역할이 주인공보다는 음향 감독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신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생각나시지요? 그러면 그들의 소리를 담아낸 음향 감독이 누구였는지 떠오르십니까? (청중을 둘러보며) 저는 학생회장이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여러분의 소리를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힘을 주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신나는 학교’를 만

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합니다.

(손가락으로 하나를 표시하며) 첫째,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건의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건의함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도 건의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함에[C] 넣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청중의 반응을 보고) 저는 건의함을 설치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학생회 게시판과 교내 방송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둘을 표시하며) 둘째, 학교 축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 축제가 몇몇 동아리들의 장기 자랑을 구경하는 축제인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축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생회 임원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어 준비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셋을 표시하며) 셋째, 여러분의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거리 공연, 즉 버스킹을 아십니까? 유명한 가수나 성악가처럼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공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버스킹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강당 앞 야외 복도를 우리의 버스킹 무대로 만들겠습니다. 음악 공연이나 춤, 시 낭송 등 형태를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의

숨씨와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에 힘을 주어)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제게 시선을 모으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잘 담아내는 음향감독,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장 후보 ○○○였습니다.

다음은 연설자가 위 연설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계획에 대해 연설 후 스스로 점검한 결과이다. 위 연설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획	점검 결과		
	반 영	미 반 영	
시작하면서 내 소개를 한 후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자.	✓	 ①
청중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질문으로 제시하자.	✓	 ②
강조 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목소리를 조절하자.	✓	 ③
내용의 구조가 쉽게 파악되도록 담화 표지를 활용하자.		✓ ④
연설을 끝까지 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인사로 마무리하자.		✓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때 발전이 촉진된다. 속담에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쓰일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의미로, 생산과 소비의 상호 작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가 없는 생산이 지속되면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어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는 ‘유효수요(effective demand)’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이때 유효수요란 돈을 주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말한다. 유효수요는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유효수요의 중요성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J. M. Keynes)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유효수요 이론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현실을 무시하고 학문적 세계에만 빠져 있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실업이나 공황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절 작용에 의해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J. B. Say)의 법칙에 입각하여, 생산된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서 (㉡)하고 그로 인해 (㉢)하는 사태는 이론상 벌어 질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예측은 빗나갔고 그들은 공황을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아담 스미스(A. Smith)가 강조한 ‘완전한 자유 경쟁’과 ‘자유방임주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 밝았던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유효수요 이론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기업의 생산량은 투자와 소비를 합한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1930년대의 대공황도 결국은 유효수요의 감소로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그에 상응할 만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 결과 생산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구매할 만큼 소득은 증가하지 못하여 과잉 생산, 과소 소비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케인스는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효수요의 창출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것과 은행 예금이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신규 투자를 활성화시켜 실업자를 구제하면 유효수요가 창출돼 가계 소비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촉진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케인스는 일시적인 유효수요의 창출로는 경기 회복을 보장할 수 없고, 경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

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른바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을 강조했다. 케인스는 필요한 물건을 형편에 맞게 구입하는 건전한 소비는 그 자체가 유효수요이고 한 나라의 경제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므로 소비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치와 낭비는 자제되어야 하지만 근검 절약해야 한다는 도덕률에 빠져 필요한 소비마저 억제하는 지나친 검소는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의 원리를 정확히 운영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임을 직시한 케인스의 주장은 당시 공황을 해결하는 최적의 해법이 되었다.

문맥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① 가격이 하락 | 실업이 발생 |
| ② 소비가 증가 | 가격이 상승 |
| ③ 기업이 도산 | 실업이 발생 |
| ④ 소비가 증가 | 공황이 발생 |
| ⑤ 기업이 도산 | 가격이 상승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이나 소매점은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 유도하고자 한다. 기업이나 소매점의 마케팅 방법이 매출액 증가라는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마케팅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야 하며, 이것이 실제 제품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최근에는 심리학적 연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케팅에 활용되는 심리학적 연구 중 하나가 조절 초점 이론이다. 심리학자 히긴스는 인간이 목표를 ㉡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동기 체계로서 ‘조절 초점’이라는 개념을 제

안하고, 이를 ‘향상 초점’과 ‘방어 초점’으로 구분하였다. 조절 초점 이론에 따르면, 향상 초점은 이상, 동경, 희망 등의 욕구와 관련되고, 방어 초점은 당위, 의무, 책임 등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서로 구분되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향상 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나 성취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특히 이득과 기회 등의 긍정적인 결과에 민감한 성향을 보인다. 반면, 방어 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수와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며,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조절 초점 이론에 따라 기업이나 소매점은 소비자의 구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나 소매점이 가격 할인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소비자의 조절 초점을 분석하여 광고를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들이 할인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했을 때,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의 만족이라는 ‘달성 결과’와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을 때의 손실이라는 ‘달성 위험’의 두 가지를 고려하고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향상 초점을 가진 성취 지향의 소비자들은 달성 결과에 집중하고 방어 초점을 가진 안정 지향의 소비자들은 달성 위험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향상 초점의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상품의 경우, 할인의 상한점을 제시하는 광고인 ‘최대 가격 할인 광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반면, 방어 초점의 소비자들을 공략할 때는 그와 반대로 할인의 하한점을 제시하는 광고인 ‘최소 가격 할인 광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조절 초점 이론과 함께 월슨의 준거 설정 이론 역시 마케팅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월슨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㉔수행할 때에 소비의 준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과거 구매 경험에 따라 내적 준거 가격을 ㉔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업이나 소매점이 제시하는 외적 준거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소매점은 외적 준거 가격으로 경쟁사의 제품 가격과 동일 제품의 과거 가격을 제시하는데, 이때 소비자가 어떠한 준거를 선택하느냐를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가 경쟁사의 제품 가격이라는 외적 준거를 활용하려는 경우, 경쟁사보다 가격 할인을 많이 해 준다는 광고는 소비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일 제품의 과거 가격을 제시하는 광고는 소비 유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비자의 심리 분석을 통한 이러한 마케팅 방법은 기업이나 소매점 등의 판매 전략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기업이나 소매점은 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조절 초점을 고려하기도 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는 준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㉔~㉔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인 장소나 방향으로 이끄.
- ② ㉔: 분위기나 정세 따위를 만듦.
- ③ 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 ④ ㉔: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
- ⑤ ㉔: 새로 만들어 정해 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법은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여기에서 권리란 생활상의 이익을 누릴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고, 의무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민법은 ㉠ ‘사적 자치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 ‘소유권 절대의 원칙’ 등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률관계를 맺을 때 온전히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을 자유로이 지배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 상대, 계약 내용, 계약 방식 등을 정해 타인과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원칙은 ‘개인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사고방식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각 개인은 이해득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개인이 법률관계를 맺는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사법상의 권리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법 제2조 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제시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제시해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히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누군가 정신적 또는 물질적 고

통을 받았다 해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관계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意思)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도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충분한주의만 하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맺고 자유 경쟁을 통해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면 개인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주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불법 행위의 요건으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한다고 책임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그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20세기에 들어 산업의 발전에 따른 위험이나 공해 등과 같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손해 발생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공장 등에서 유해한 폐수나 가스가 방출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면 무과실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무과실 책임주의는 이와 같이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이 가진 재산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유권이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해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책임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화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를 인정하고 그것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소유권의 절대성이 타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에는 소유권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사유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민법의 세 기본 원리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 적 자치의 원칙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필요하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없으면 사적 자치의 원칙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소유권 보장은 각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따라 계약 상대, 계약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의 적용을 어렵게 만든다.
- ② ㉠, ㉣은 개인이 이해득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에 근거해 제정된 것이다.
- ④ ㉠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 ㉡, ㉣이 필요하다.
- ⑤ ㉡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적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 때문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민요(民謠)는 민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오랫동안 구전되면서 민중의 삶을 그대로 노래하였기에 민요에는 민중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사회적 억압과 부조리에 대한 원망이 드러날 때도 있다. 민요

는 민중의 생활 어느 곳에서나 자리하고 있었다. 흔히 민요를 기능에 따라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등으로 분류하기 도 하는데, 이는 그만큼 민요의 쓰임이 다양했음을 말해 준다. 이런 이유로 중세의 지배층들 가운데에는 민요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당시의 민심을 읽고 정치에 교훈으로 삼으려 노력한 이들도 있었다.

전통 사회에서 민중이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익혀서 부르는 노래이기에 대개는 전문적인 훈련 없이도 쉽게 만들어 부를 수 있는 것이 민요였다. 형식은 비교적 단순하고, 언어는 평이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 중 하나인 「정선 아리랑」은 현재 수백 수 의 사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동일한 후렴구를 사용하면서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사설을 다양하게 덧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민요와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갈래로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잡가(雜歌)가 있다. 민요가 아주 오래전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어져 왔다면, 잡가는 고전 시가의 여러 갈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것으로, 상업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갈래이기 때문이다. 잡가는 조선 후기 직업적, 반 직업적 소리꾼들에 의해 도시의 유흥 공간에서 가창된 노래들로 통속적이고 유희적인 화려함이 두드러진다. 또한 ㉠잡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요는 물론 시조나 가사, 판소리 등 동시대의 여러 가창 갈래들과 서로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A]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서 산만 충충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가 왜 피며

[B] 모춘 삼월(暮春三月)*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C] 싸릿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D] 잠시 잠깐 임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모춘 삼월: 봄이 저물어 가는 음력 삼월.

*올동백: 제철보다 일찍 꽃이 피는 동백.

(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저서

거지중천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활썬 펴고

펄펄 백운 간에 높이 떠

천 리 강산 떠나면 길에 어이 같고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 장송(長松)은 낙락

에이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 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 상에 폭포수는 활활

수정렴 드리온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살살 열의 열 골 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코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
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활활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巢父) 허유(許由)*가 문답하던 기산 영수
(箕山潁水)가 이 아니냐

주각제금(住刻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
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일출 낙조(日出落照)가 눈앞에 버려니 경개 무
궁 좋을시고

-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소부 허유: 중국 요순시대에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인물들.

*주각제금: 두견새.

*적다정조: 소쩍새.

(나)와 (다)의 시어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무릉도원’과 (다)의 ‘기산 영수’는 모두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의 ‘산’과 (다)의 ‘원산’은 모두 화자의 우울한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 ③ (나)의 ‘명사십리’는 긴장감을 유발하고, (다)의 ‘일출 낙조’는 흥겨움을 자아낸다.
- ④ (나)의 ‘두견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의 ‘제비’는 자연의 무심함을 느끼게 한다.
- ⑤ (나)의 ‘올동백’은 시간의 흐름을, (다)의 ‘폭포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제갈공명이 뛰어난 인재라는 말을 들은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그를 감동시켜 모사(謀士)로 맞 아들인다. 한 편 조조는 백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에 나선다. 제갈공명은 오나라로 가서 손권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조와 맞서 싸우도록 유도한다. 드디어 적벽에서 싸움이 벌어져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이 승리하고 조조는 많은 군사를 잃고 달아나게 된다.

<중중모리>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 들러메고 발세치레 건조로 세 발걸음 중 뛰엄 몸을 날려 경충경충 섭수 있게* 들어와, / “예.”

<아니리>

조조 깜짝 놀래어,

“예끼 웬 놈이 저리 성하냐. 저놈이 장비 군사 아니냐.”

㉟“성하거든 회 쳐 잡수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

“병든 놈 대려 먹자기로 성한 놈은 회 쳐 잡수시라 하였소.”

“어따 이놈아 그놈이 하도 불쌍하기로 그랬다. 또 불러라.”

“마병장 구먹쇠.” / “예.”

“너는 전장에 잃은 건 없느냐.” / “잃은 건 별로 없습니다.”

“야 거 신통허다. 그럼 말은 다 어쨌느냐.” / “팔았소.”

“저런 승헌 도적놈 이 있나. 그 좋은 말을 나더러 묻도 앓고 네 것 팔 듯 팔었단 말이냐.”

“한나라 공명이가 사러 보내더라고 왔기에 미리 댕돈 금으로 열일곱 바리에 양 일곱 돈 받고 팔어버렸소.”

조조 기막혀, / “그놈 눈구녁이 큰일 낼 놈이로고.”

㊤“눈이사 승상님 눈이 더 큰일 낼 눈이지요.”

“어따 이놈들 말말에 폭폭하야 나 죽겠다. 시장하니 군량식이 불러 밥 지어라.”

〈중모리〉

점고*하야 보니 불과 백여 명이라 그중의 갑옷 벗고 투구 잃고 앓은 놈 누운 놈 엎진 놈 패(沛)진 놈* 배가 고파 기진한 놈 고향을 바라보고 양천통곡 호천망극 길 갈 수 전혀 없네. 조조 마상에서 채를 들어 호령하며 행군길을 재촉하더니만,

〈아니리〉

“히히히히히 해해해해.” / 대소허니 정욱이 기가 막혀,

“야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적벽에서 한 번 웃어 백만 군사 몰사하고 오림에 두 번 웃어 죽을 봉변당하고 ㉔이 병 속 같은 데서 또 웃으셨으니 이젠 씨도 없이 다 죽는구나.”

조조 듣고 대답하되,

“너희도 생각해 보아라. 주유 공명이가 이곳에다 복병은 말고 병든 군사라도 여나무 명 두었더라면 조조 말고 비조라도 살어갈 수 있겠느냐. 히히해해.” / 대소허니,

〈자진모리〉

웃음이 지듯마듯 화용도 산상에서 방포성이 쿵이 너머에서도 쿵 저 너머에서도 쿵 궁그르 궁그르 궁그르.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듯 뇌고 나팔 우통팽처르르르 화용 산곡이 뒤끓으니 위국 장졸들이 혼 불부신(魂不附身)*하야 면면상고(面面相顧)* 서 있을 제, 오백 도부수(刀斧手)가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기를 들었난디 대원수 관공 삼군사명기라 등두렛이 새겼는데 늠름하다. 주안봉모(朱顏鳳眸)* 와잠미(臥蠶眉)* 삼각수(三角鬚)*에 봉

의 눈을 부릅떠 청룡도(靑龍刀) 비껴들고 적토마 달려오며 우레 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뒤흔들며,

“어따 이놈 조조야. 날다 길다 길다 날다 긴 목을 길게 빼어 칼 받으라.”

조조가 황겁하야, / “여봐라 정욱아, 오는 장수 누구냐.”

정욱이도 혼을 잃고 / “호통 소리 장비 같고 날랜 모양 자룡 같소.”

“자세히 살펴보아라.” / “기색은 홍색이요 위풍이 인후(仁厚)하니 관공일시 분명하오.”

“더욱 관공이라면 욱도무처(欲逃無處)요 욱탈무계(欲脫無計)라*. 사세도차(事勢到此)하니* 아무렇게 나 한번 싸워 볼밖에는 수가 없다. ㉔너희들 조조의 응명(雄名)이 삼국에 으뜸이라. 사즉사(死卽死)언정 이 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이 되리 로다.”

〈아니리〉

“허허 야들야 신통한 피 하나 생각했다.” / “무슨 피를 생각했소.”

“나를 죽었다고 홀이불로 덮어 놓고 너희 모도 군중에 발상(發喪)*하고 앓어 울면 송장이라고 막 걸리 동우나 내고 피할 것이니 홀이불 둘러쓰고 살살 기다가 한 달음박질로 길로 달어나자.”

정욱이 기가 막혀,

㉕“산 승상 잡으려고 양국 명장 쟁공(爭功)*하오.”

“힘을 써서 한번 대전해야 보자.” / 정육이 여짜
오되,

〈중모리〉

“장군님의 높은 재조 호통 소리 한번 나면 길짐
생도 갈 수 없고 검광이 번뜻 나면 나는 새도 똑 떨
어지니 적수단점으로 오관참장(五關斬將)*하는 수
단 인마기진(人馬氣盡)*하였으니 감히 어찌 당하리
까. 만일 당 적을 허랴 허면 씨도 없이 모도 죽을
테니 전일 장군께서 승상 은혜 입었으니 어서 빌어
나 보옵소서.”

“빌 마음도 있다마는.”

“사 승상(死丞相) 목 베기야 청룡도 드는 칼로 눈
목 얼마나 그리 힘들여 베오리까. 공연한 피 내었
다 목만 허비될 테니 얇은피 내지 말고 어서 빌어
나 보옵소서.”

-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섭수 있게: 솜씨 있게.

*점고: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함.

*패진 놈: 넘어진 놈.

*혼불부신: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면면상고: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봄.

*주안봉모: 붉은 얼굴에 봉황의 눈동자.

*와잠미: 잠자는 누에 같다는 뜻으로, 길고 굵은

눈썹을 이르는 말.

*삼각수: 두 뺨과 턱에 세 갈래로 난 수염.

*욕도무처요 욕탈무계라: 도무지 도망갈 길이 없다.

*사세도차하니: 일의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니.

*발상: 상례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림. 또는 그런 절차.

*쟁공: 공로를 서로 다툼.

*오관참장: 다섯 관문의 장수를 뵈.

*인마기진: 사람과 말의 기운이 다 빠짐.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자신을 의심하는 상대방의 말을 비꼬는 투로 되받아치고 있다.

② ㉡: 상대방이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길 인물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③ ㉢: 비유를 통해 극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④ ㉣: 자신이 삼국에서 가장 영웅적인 인물임을 내세우고 있다.

⑤ ㉤: 상대방의 말이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null

다음 중 주체를 높이는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어머니가 그 가방을 사 주셨습니다.
- ② 형님이 바뀐 내용을 알려 주셨습니다.
- ③ 우리 할머니는 유달리 귀가 밝으십니다.
- ④ 할아버지는 벌써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 ⑤ 선생님은 준비물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null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 예술가는 P 도시 여행 중에 이 도시를 상징하는 사원의 탑을 소묘하였다. 이 탑은 사원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원 건물은 경내와 주위, 그리고 P 도시의 시가 전체와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탑을 소묘하기 위해 우선 주변과 탑을 분리해 내는 작업을 한다. 탑은 실제로 수많은 돌로 축성되어 있으며 이 돌들의 특정한 군집이 탑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예술가는 오직 탑의 음영에만 주목하여 관찰한다. 즉 그는 실재적이고 내적인 유기적 조직이라는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보편적 개념에 주목하여 외적이고 도식적으로 탑을 표현하였다. 예술가는 사원의 탑 외에도 P 도시의 여러 곳을 여행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소묘를 했고, 각 그림들의 오른쪽 밑에 ‘P 도시’라고 메모했다.

- ① 예술가가 소묘하기 위해 관찰한 것은 탑의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에 해당하므로 부분이 아니라 요소이다.
- ② 예술가가 주변과 탑을 분리해 내는 작업은 탑의 속성에 대한 인위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것은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다.

③ 예술가는 탑의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주목함으로써 소묘를 통해 탑을 도식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속에 P 도시의 특성을 함축하였다.

④ ‘P 도시’라는 메모가 적힌 각 그림들을 연결시켜 감상한다고 해도 P 도시를 가 보지 않은 사람이 P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획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⑤ 탑의 음영에 집중한 예술가의 소묘는 여러 각도에서 그린 것들을 결합할지라도 탑을 온전하게 복원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조세 부담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온 것은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조세부담률, 즉 조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수준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중 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다 쓴다는 것을 뜻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 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이것도 너무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활동 영역을 좀 더 넓혀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렇다면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조세는 정부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

면서 조세는 단순한 수입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때 조세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남겨 줌으로써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경제 안정을 위해 거둬들이는 세 금의 크기를 조정하다 보면 정부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지는 것이 보통인데, 여러 해 동안 계속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채의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채 발행액의 증가는 나중에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정 없이 국채를 찍어내기는 힘들다. 현대의 정부 중에는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너무 많은 국채가 발행된 나머지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나아가 조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세를 부과한다든가, 오염물질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나아가 법인세제도를 활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② 조세부담률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조세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오늘날 많이 확대되었다.

④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이 미흡하다.

⑤ 조세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